

“더 뉴 그랜저, AI 등 최초 적용 기술중심 상품성·경험 혁신”

현대차 테크 팝업스토어

개발과정 공유... 소비자 만족도 집중
소음 개선 등 패밀리세단 경쟁력 강화
‘플레오스 커넥트’ 기반 SDV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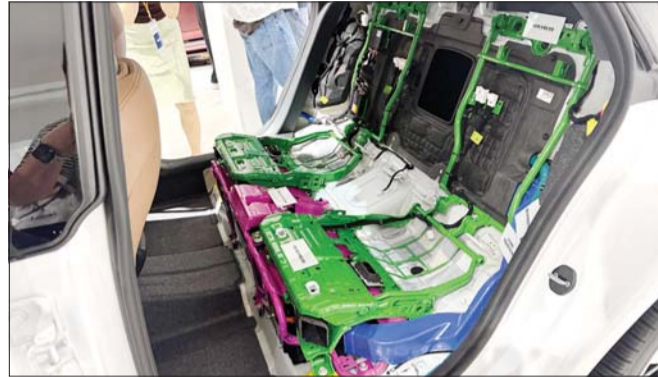
“더 뉴 그랜저는 고객의 의견을 최우선
으로 반영한 7번의 도전의 결과물이다.”

김평 현대차 MLV프로젝트3팀장은 9
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포멀 스퀘어
에서 ‘더 뉴 그랜저 테크 팝업스토어’ 행
사를 개최하고 차량 개발 과정을 공유했
다. 김 팀장은 “앞서 출시한 그랜저 모델
에 대한 고객과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했다”며
“3년 6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이라도 소비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더 뉴 그랜저의 핵심은 ‘최초 적용’
기술을 중심으로 상품성과 사용자 경
험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9일 서울 성동구 인포멀 스퀘어에서 개최한 ‘더 뉴 그랜저 테크 팝업스토어’에 전시된 더 뉴 그랜저 차체·트렁크.



/양성운 기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그룹
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국내 최
초로 탑재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했다.
최고출력 239마력, 최대토크 38.7kgf·m,
복합연비L당 18.4km를 달성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8.0초로 단축됐다.

기술적 완성도도 높였다. 엔진 정지각
제어 기술을 통해 엔진 재시동 시 발생하
는 진동을 최대 51% 줄였고, P1·P2 모터
의 역위상 제어 기술을 적용해 엔진 진동

을 상쇄함으로써 실내 부밍 소음을 약 3d
B 개선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단 최
초로 2열 리클라이닝과 통풍 시트를 적용
하기 위해 배터리와 시트 구조를 새롭게
설계,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경쟁력도 강
화했다.

또 차체와 전륜 서스펜션 연결 구조를
강화하고 카울 크로스바 강성을 높여 조
향 응답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등 주
행 품질 역시 플래그십에 걸맞게 개선됐
다.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와 후륜 서

스펜션 강성 보강으로 차체 거동 안정성
을 높였다. 액티브 에어 플랩과 에어커튼
등 공력 개선 기술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기저항계수(Cd)를 0.27에서 0.
26으로 낮췄다. 이는 주행 효율과 냉각 성
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혁신도 눈길을 끈다. 더 뉴 그
랜저는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
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
했다. 17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생
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와 안드로

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를 결합해 차
량을 개인 맞춤형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
했다. 앱마켓을 통한 기능 확장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해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기능이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도
반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테슬라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기술과 안전을 중심으로 적용하
고 있다”며 “디스플레이는 물론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추가 적
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스마트 비
전 루프를 최초로 적용하며 개방감을 높
였다. 기존 파노라마 선루프보다 개구 면
적을 약 42% 확대하고 6개 영역별 투명도
독립 제어가 가능하며 열 차
단 성능을 30% 향상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가전업계, 유럽 히트펌프 시장 공략 속도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 수요 급증 에어컨 기반 공조사업 입지 확대

기록적 폭염으로 유럽 냉방 수요가 급
증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을 넘어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
고 있다. 히트펌프는 에어컨과 같은 냉매
기술을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 공급을 함
께하는 설비다. 냉방 수요 확대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탈탄소 정책이 키우는
난방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9일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
면 올해 1분기 유럽 11개국의 가정용 히트
펌프 판매량은 약 57만5000대로 전년 동
기(49만4000대)보다 17% 증가했다.

프랑스·독일·폴란드 3개국의 판매량은
평균 25% 늘었다. 지난해 역성장을 겪었
던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
승과 난방 전환 수요를 바탕으로 회복세
로 돌아섰다.

성장을 이끄는 배경은 정책과 에너지
가격이다. 벨기에는 화석연료 난방 규제
와 신축 건물 히트펌프 부가가치세 인하
를 시행했고 영국은 보일러 교체 지원 제

도를 운영하며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에
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기 기반
난방 전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양사도 기존 에어컨 사업을 기반으로
유럽 공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
의 에어컨 보급률은 20% 안팎에 그친다.
최근 폭염이 잦아지면서 보급률이 낮았
던 유럽에서도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와 프
랑스 등 주요국의 에어컨 판매가 두 자릿
수 성장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유럽 물량을 담당하는 창원
생산라인을 지난 4월부터 완전 가동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 공조사업을 기반으로 히트
펌프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기업 ‘OS
O’를 인수해 히트펌프와 온수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공급 체계를 구축했
다. 남유럽 5개국에서 10만 가구 이상에
히트펌프를 공급했다.

지난 3월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인 ‘M

CE 2026’에서는 주거용 히트펌프 신제품
을 공개했다. 또 최근에는 108도의 고온수
를 공급하는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
지공장에 공급해 가동을 시작하며 산업용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히트펌프 브랜드 ‘EHS’ 라
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
하고 있다.

올해 유럽 시장에 냉난방과 온수 공급
을 통합한 ‘EHS 올인원’을 출시했다. ‘M
CE 2026’에서는 지난해 인수한 독일 공조
기업 플렉트그룹과 처음으로 공동 전시관
을 운영했다.

다만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는 변수
다.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는 이동식 에어
컨 ‘포타스플릿’을 앞세워 지난 5월 독일
스페인과 프랑스 출하량도 108% 증
가했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냉방 제품으로
확보한 판매망을 히트펌프 등 난방 시장
까지 확대할 경우 유럽 공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 국내 최고용량 해저케이블 상용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정조준

LS전선이 국내 최고 송전 용량의 초고
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상용화
에 나서며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공략에 속도를 낸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525kV·80°C급H
VDC해저케이블의 PQ(Pre-Qualificatio
n) 시험을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PQ 시
험은 케이블의 장기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
하는 국제 인증 절차다. 이번 시험 통과로
LS전선은 향후 사업 주주 시 형식시험(Ty
pe Test)만 거치면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도체 허용 온도를 기존 70
°C에서 80°C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같은
구간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어 장
거리·대용량 송전망에 적합하며 높은 전
압과 운용 온도를 견디는 초고압 절연 기
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LS전선은 이번 PQ 통과로 서해안 에

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고품량
해저케이블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서해
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서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
요지로 보내는 전력망 사업이다. 발전지
와 수요지 간 거리가 먼 만큼 대용량 전력
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HVDC 해저케이블
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전선은 제주 2·3연계사업과 유럽 테
넷(TenneT) 프로젝트 등에 HVDC 케이
블을 공급하며 관련 실적을 쌓아왔다. 여
기에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결합해 제조부터 해상 포설까지
아우르는 턱키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PQ 시험 통과
는 차세대 국가 전력망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LS마린솔루션과의
제조·시공 턱키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글로벌 HVDC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글로벌 상업용 세탁시장 선점 나서

‘LG 프로페셔널’ 출시... 6종 구성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
술을 결합한 대용량 상업용 세탁 솔루션
으로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
략에 속도를 낸다. 상업용 세탁기전 제품
군을 확대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세탁 시
장 수요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기전 ‘L
G 프로페셔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LG 프로페셔널은 30·25·20kg 세탁기,
30·25kg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한 대로
모두 수행하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
(세탁 25kg, 건조 16kg) 등 총 6종으로 구
성된다. 이달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북



‘LG 프로페셔널’ 제품 이미지. /LG전자

미 등 주요 시장에 LG 프로페셔널을 순차
출시한다.

LG 프로페셔널은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더한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대
용량 세탁물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세탁·
건조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강
점이다. AI가 세탁물 무게를 분석한 뒤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건조 조건을 최적
화해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
인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 고속 탈수로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여 건조 시간을 단
축한다. 1100rpm은 세탁조가 1분에 최대
1100회, 1초에 약 18회 회전하는 속도다.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다이내믹 볼 코
어 시스템*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자이
로 센서로 드럼 내부의 불균형을 감지하
고 자동으로 보정해 고속 탈수 시 발생하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줄인다.

건조기와 일체형 세탁건조기에는 저온
제습 방식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
용했다.

LG전자는 제품 공급뿐 아니라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리까지 고려한 통합 B
2B 솔루션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자체개발 30t급 무인수상정 진수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30톤급 무인
수상정을 진수하며 해양무인체계 사업 확
대에 나선다. 해상 시험을 통해 인공지능
(AI) 자율운항과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를
검증하고 이를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140톤급 무인수상정 개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투자로 개발한 30톤
급 무인수상정을 지난달 초 부산 가덕대
교 인근에서 진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무인수상정은 부산과 거제 징북항
을 오가며 해상 시험에 들어갔으며 2027
년 말까지 AI 기반 자율운항 기술과 개방
형 아키텍처 완성도를 검증하는 테스트베
드로 활용된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해군의 해양 유·무
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에 맞춰 약 700억원



한화시스템 30톤급 무인수상정이 거제 잠곡항
에서 해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을 자체 투자해 30톤급과 140톤급 무인수
상정(US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
령’에 적용한 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규격 기준 실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미 해군의 무인 해양 자율성 아키텍처인
UMAA(Unmanned Maritime Autono
my Architecture) 기준에 맞춘 글로벌
규격 호환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